

하여 내용물이 맑은 액체로 나오면 일단 부갑상선 낭종을 의심하여 내용물의 세포진 검사와 부갑상선 흘몬의 측정, 초음파 검사 및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이의 확진과 종괴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검사 과정을 거친 후 수술에 임해야 할 것이며 수술은 낭종만 제거하면 완치되나 나머지 부갑상선의 정상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었다.

— 22 —

두경부 신경초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최상용 · 박정수 · 양우익*

신경초종은 1910년 Verocay에 의해 “neurinoma”로 첫명명된 이후 Schwann cell에서 기원한 것임이 밝혀져 “Schwannoma”로 불려지고 있다. 이중양은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차이는 없으며 그 크기가 다양한데, 크기가 커짐에 따라 내부에 낭성 혹은 출혈성소견을 보이는 구형 혹은 방추형의 피막에 잘싸여 있고 조직소견상 세포가 일렬로 배열되는 Antoni A type과 성긴 세포질을 갖는 Antoni B type의 세포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경초종은 두경부에 호발하는데 그 빈도가 전체 신경초종의 25~45%에 달하며 특히 두경부에는 중요한 신경분포가 많아 수술에 따른 적지않은 신경장애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만 10년 5개월간 본원을 내원 신경초종으로 진단, 치료 받은 환자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168예의 신경초종 환자중 두경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39예(23.2%)였고 이중 다발성 신경초종이 2예 있었다.

2) 이들 대부분(87.5%)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수술전 신경증상을 호소한 예는 7예(8.9%)였다.

3) 수술시 신경 기원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19예(48%)이었는데 안면신경 2예, 미주신경 4예, 설하신경 2예, 완신경총 6예, 경부교감신경 3예, 경

신경 2예 이었다.

4) 조직검사상으로 antoni A dominant type이 많았다.

5) 수술은 simple excision이 18예, intracapsular enucleation이 16예, tissue biopsy가 3예 이었고 수술시 신경기원을 발견한 예에서는 주로 intracapsular enucleation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simple excision을 시행하였다.

6) 수술후 재발은 1예(2.8%) 신경기능마비는 8예(22.2%)였다.

결론적으로 두경부의 신경초종을 진단 수술하는데는 수술전 임상적으로 의심하여 수술시 종괴 주위의 세심한 해부를 통해 정상신경조직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신경섬유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막절개를 통한 enucleation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신경이 많은 두경부에서 적합한 수술법이라 하겠다.

— 23 —

심한 해부학적,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한 섬유성 골이형성증의 치험례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학교실

최 희 윤

섬유성 골이형성증은 병리학적으로 다발성 섬유성 골병변과 피부 색소반 및 성적조숙이 병존하는 McCune-Albright 증후군, 다발성의 골수 섬유병변이며, 피부색소 침착과 성적조숙을 동반하지 않는 다골 섬유성 골이형성증(polyostotic fibrous dysplasia), 단일골에 섬유성 골병변이 발현하여 색소반이나 내분비장애를 나타내지 않는 단골성 섬유성 이형성증의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두안면에 있어서의 섬유성 골이형성증은 일반적으로 단골성으로 발현하고, 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본증은 소아기에서 시작하며 발육은 극히 완만하지만, 차차로 골팽윤을 나타내어 안면의 변형을 가져오고, 성인기에서는 골병소의 진행이 정지 경향을 나타내며, 화골이 진행하여서 정지상태로

된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골팽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해부학적이거나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안구주위의 골팽창으로 인한 안구돌출, 상악골의 팽창으로 인한 비폐쇄, 드문 경우이나 악성종양으로의 전이 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섬유성 골이형성증, 범발성 섬유성 골염, Paget병 또는 골화석증등으로 인해 안면을 구성하는 골조직의 현저한 골증식으로 사자 얼굴과 같은 추형을 나타내어 골성 사자면증(Leontiasis Ossea)을 가져오는 경우는 하나의 증상명으로 나타낼수 있다.

본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실에서는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경험하였다. 즉, McCune-Albright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14세의 여아에서는 우측 관골, 상악골 및 비골에 급격한 골성장을 보이는 섬유성 골이형성증으로 비폐쇄 및 심한 추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골성 사자면증(Leontiasis Ossea)의 소견을 보였고, 동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였다. 또한 안면골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보이는 30세의 여자 환자에서는 좌측 관골, 상악골, 비골 및 안저부 이형성골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의 실명을 야기시킬 정도의 안구돌출증과 비폐쇄, 안면추형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기타 여러명의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보이는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그 치험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24 —

두개골 조기 융합증을 동반한 희귀 선천성 기형 치험례

연세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

유대현 · 박병운

두개골 조기 융합증은 두개 및 안면부의 변형 뿐 아니라 뇌실질의 성장을 억제하여 지능의 저하, 뇌신경 마비, 시력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흔히 다른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다.

1931년 Saethre와 1932 Chortzen이 보고한 바 있는 Saethre-Chortzen syndrome은 두개골 조기 융합증과 ptosis, brachydactyly, partial cutaneous syndactyly 등의 다양한 사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빈도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 만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frontonasal dysplasia(orbital hypertelorism, bifid nose etc)와 더불어 craniosynostosis 및 다양한 사지기형을 동반하는 craniofrontonasal dysplasia는 1979년 Cohen이 명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0여 정도만이 보고 되었을 뿐이다. 본 교실에서는 craniosynostosis와 더불어 다양한 사지의 기형을 동반하는 saethrechortzen syndrome 1례 및 craniofrontonasal syndrome 1례에 있어서 두개 및 안면 성형 수술 후 원격 추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 25 —

안면골 변형을 동반한 림프관종의 치험례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

차상면 · 최희운

안면부의 과오종(hamartoma)은 태생학적 발달에서 기인하며 주로 출생시 또는 생후 수년내에 발생한다. 과오종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인 hematia 즉, 결손 또는 실수란 뜻에서 유래되는데 이는 태생기에 세포의 과도성장으로 생기며 안면부에서는 주로 연조직을 침범하여 부분적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과오종은 종양을 이루는 주된 조직 세포에 따라 신경종, 혈관종, 림프관종 등으로 나눌수 있다.

림프관종은 림프관 조직의 증식과 림프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얇은 내혈관벽을 이루는 조직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생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은 없고, 발생빈도에 대해서도 아직 문헌에 발표된 적은 없다. 조직학적 분류상 단순성 림프관종, 해면상 림프관종, 낭포성 림프관종 및 림프혈관종으로 나눌수 있으며 진단은